

文과 통화·참모진 압박...에타는 트럼프

NYT 백악관 분위기 보도 북미회담 위험 떠안아야 하나 김계관 담화 이후 질문 공세

다음달 북미정상회담이 '정치적 낭패'가 될 수도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유력신문인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나왔다. 역사적인 이번 북미회담을 진행하는 위험 부담을 계속 떠안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 최근 며칠 간 참모진들에게 질문을 퍼부었다고 보도했다.

NYT는 20일(현지시간) 미 정부 및 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은 백악관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하면 북미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

는 지난 16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장의 담화 발표에 적잖이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18일 참모진들에게 회담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참모진들에게 질문 공세를 했다.

이어 19일 밤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공식 담화 내용이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달해 온 내용과 왜 상충하는지 물었다. 이날 통화는 문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이를 두고 미 정부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 올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NYT는 전했다. 특히 참모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염두에 두면서 이번 회담을 지나치게 갈망하는 듯한 신호를 보인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 대

통령의 이러한 열망을 알아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질" 약속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참모진들이 우려하는 또 한 가지는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양보할 수 없는 핵심요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세부 협상 계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최근 두 차례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김 위원장에 대해 '복잡한 논의에도 아주 능할 정도로 영리하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배라 오퍼라 조지 부시 W. 대통령과는 달리 우라늄 농축 능력이라든지 플루토늄 재처리, 핵무기 생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세세한 브리핑을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게 참모진들의 전언이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이 이번 북미회담에서 향후 6개월 내에 핵무기 일부를 넘기고 관련 시설을 폐쇄하며 사찰을 허용하는 '타임 테이블'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7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사전협상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와 핵 관련 물질 등 일부를 6개월 안에 해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스케줄은 과거 북한의 전통적인 협상 스타일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무리한 계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6개월 안에 북한이 아무 보상 없이 핵무기를 넘기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결국 이전 정부들이 시도했던 방식대로 트럼프 정부 역시 일종의 단계적 조치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당나라 명장 고선지

고선지(高仙芝, ?~755)는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당의 서역 정벌에 큰 공을 세웠다.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 연합군에 패했으며 안녹산의 난 때 참수되었다.

일찍이 신장성 고자현에 해당하는 안서 지방에서 군무에 종사했다. 날쌔고 용맹하며 말 위에서 활을 잘 쏘아 절도사 부용령찰의 천거로 안서 부도호, 도지병마사로 승진했고 4진 절도사가 되었다. 747년 토번의 세력이 커지자 행영절도사로 임명돼 1만 기병을 이끌고 토벌에 나섰다. 1차 서역 정벌이었다. 이사업을 특공부대장으로 임명된 공을 포로로 잡았다. 그해 8월 소발물왕과 토번공주를 사로잡아 귀환했

군이 대치하던 중 투르크계 갈라돌부가 반란을 일으켜 당을 협공했다. 온종일 싸웠으나 대패해 남은 병사가 수천명에 불과했다. 우무위장군 이사업의 권유로 간신히 적의 포위망을 뚫고 도망쳤다. 장군 단수실이 "적을 피할 때는 멀리 도망해 용감함이 없고, 자신을 온전하게 하고 무리들을 버렸으니 어질지 않다. 다행히 도착했지만 어찌 부끄러움이 없는가"라고 말할 정도로 참혹한 패배였다. 전투 패배 후 하서절도사로 전임되었다. 장안에 입경한 후에는 우무위대장군에 임명되고 밀운군공에 봉해졌다.

755년 3도 절도사 안녹산이 난을 일으켰다. 파죽지세로 서진해 동도 낙양을 함락시켰다. 조정은 영왕 이왕을 원수로 고선지를 부원수로 삼아 동정물왕과 토번공주를 사로잡아 귀환했

하와이 화산폭발 3주째...날아다니는 용암 조각에 첫 중상자 발생

2주 넘게 화산재와 용암을 내뿜고 있는 미국 하와이주 하와이 섬(빅아일랜드) 동단 킬라우에아 화산 인근에서 첫 중상자가 나왔다.

주민과 관광객 수천 명이 대피한 가운데 그동안 다친 사람이 없었지만,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한 명이 용암이 튀면서 하반신을 심하게 다쳤다고 AP통신과 하와이 현지신문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노스팜스 로드에서 있는 집주인으로 알려진 이 주민은 자택 3층 발코니에서 있다가 용암이 튀면서 암석 조각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라바 스패터(lava spatter)'에 정강이를 맞았으며,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다.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시장실 대변인 재닛 스나이더는 "라바 스패터"는 암석을 녹인 발사체 같은 형태로 사람을 위협한다. 작은 조각이라도 맞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냉장고 무게만 한 용암 조각이 날아다닌다"라고 말했다.

킬라우에아 화산 주변에는 할레마우마우 분화구와 주변 균열 등 모두 22곳에서 용암이 분출되고 있다. 가옥 36채가 부서진 데 이어 4채가 더 전소하거나 파괴됐다. 용암이 도로를 타고 넘으면서 주민 수십 명이 고립돼 있다가 주 방위군과 재난 당국이 동원한 헬기호 구출했다.

동쪽 균열에서 흘러나온 용암은 산발도 일으켰다. 하와이 카운티 민방위국은 "지배권 용암이 닿은 지역 삼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찍혔다"고 말했다.



거대한 용암벽 2주 넘게 화산재와 용암을 내뿜고 있는 미국 하와이주 하와이 섬(빅아일랜드) 동단 킬라우에아 화산 인근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한 명이 용암이 튀면서 하반신을 심하게 다쳤다고 하와이 현지신문 등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취재진이 하와이 파호아 지역 인근에서 화산 용암으로 만들어진 벽을 취재하는 모습.

주민들의 주 탈출로인 137번 고속도로도 용암으로 위협받고 있다. 용암이 해안도로를 넘어 바다로 흘러내리면서 바닷물과 맞닿아 유독성 연무(煙霧)인 '레이즈'를 발생시켰다고 CNN이 전했다. '레이즈(laze)'는 용암인 라바(lava)와 희뿌연 연무인 헤이즈(haze)의 합성어로 섬씨 1200도에 달하는 용암이 바닷물에 닿으면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뿜어내는 연기를 말한다. '레이즈'에는 염화수소 또는 염산 성분이 포함돼 피부에 직접 노출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와이 화산관측소(HVO)는 경고했다.

현재 킬라우에아 화산 주변에는 주민 2천 명이 이상이 대피한 상태. 화산재 가스기둥은 여전히 상공 3km 가까이 치솟아 있으며, 유독성 이산화황 가스를 내뿜고 있다.

서역 정벌한 고구려 유민 출신 장수

다. 공으로 안서 사신절도사가 되었다. 봉상정을 부사령관급인 판관에 임명하였다. 이후 정벌을 하러 나가면 항상 유후(留侯)로 삼아 부채시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다. 봉상정은 산서성 임의현 출신으로 어려서 부모를 잃었으며 누이 어그리지고 한쪽 다리가 짧았는데 수심일동안 하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해 부하로 삼았다.

750년 2차 서역 정벌에 나서 인도 북부인 결사지방을 점령하였다. 발트 목왕을 사로잡고 형 소가를 새 왕으로 삼았다. 또한 거짓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의 석국(石國)과 화약을 맺고 적이 안심한 사이 기습해 왕과 백성들을 사로잡아 귀환했다. 포로 중 늙고 약한 사람은 모두 죽였다. 다수의 사람과 재물을 취하였다. 공으로 751년 개부의동삼사로 승진했다. 이어 안사순을 대신해 하서절도사가 되었다. 그러나 석국 정벌은 커다란 후유증을 남겼다. 많은 젊은이를 포로로 잡았고 재물과 보화를 전부 약탈하였다. 난을 피해 도망친 석국의 왕자가 주변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당의 만행을 호소했다. 석국을 돕기 위해 대식국(大食國)을 중심으로 이슬람 연합군이 결성되었다. 아바스 왕조의 군대와 당군이 격돌한 탈라스 전투가 시작되었다.

751년 3만의 군대를 동원해 대식국을 치고자 700여리 길게 행진했다. 양

을 거느리고 장안을 출발하였다. 환관 변령성이 갑군으로 군대를 감독토록 하였다. 하남성 섬군에 주둔했는데 봉상정이 건의하기를 "동관에는 병사가 없으니 만약 돼지 같은 적들이 동관으로 돌진하면 장안이 위험합니다. 섬군을 지킬 수 없으니 병사를 이끌고 먼저 동관을 굳게 지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병사를 이끌고 동관으로 이동했는데 도중 적을 만나자 관군이 허둥지둥 달아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정도로 관군의 기강이 무너졌다.

그는 갑군인 변령성과 자주 다투었다. 변령성이 상소를 올려 "봉상정이 적을 이용해 병사들을 흔들었고, 고선지는 섬군 땅 수백 리를 버렸으며 군사들의 식량을 도둑질하였습니다."라고 고발했다. 대노한 현종은 칙서를 내려 둘을 목 베게 하였다. 변령성이 황제의 칙서를 선포하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적을 만나서 물러난 것은 죽어도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위로는 하늘을 머리에 이고 아래로는 땅을 밟고 있는데, 황제가 내려준 식량을 훔쳤다는 것은 무고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억울하다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다. 결국 고선지의 목을 베었다. 서역을 정벌한 명장의 허망한 최후였다. 후임 가사현이 동관 방어에 실패해 장안이 점령되고 현종은 사천으로 피난 가게 되었다.

상가원룸매매(신축)

☐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10개) (투룸 2개)
4층 (최고급 주택) 전망최고!!

▶ 매가 9억5천만

-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 16개) 월세 580만 ▶ 매가 8억2천
- ②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5천만
- ③ 전대정문 2분 (원룸18개, 안집1개) 70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용3억5천만가능)

062-382-5500 010-6670-9800

상가 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23평 (투룸형)
보 5백 월 45만

시세 1억
매가 7천5백만

- ① 상무지구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보5백 월40만) ▶ 시세 8천만~매매가 7천만
- ② 월산동 3층상가건물, 무등시장 1분 (코너) 보1억4천 월900만 (용 7억) ▶ 매가 22억
- ③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초역세권 토지) 송탄역 1분. (코너) (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매가 9억
- ④ 평택 독곡동 전원주택 분양(투자적합) 송탄역, 친위역 5분 (고덕신도시 7분!!) 1필지 약 200평 ▶ 매가 2억4천만(용1억2천)
- ⑤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산정동) 코너 총 16개 (상가개) ▶ 매매가 3억5천만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상가빌딩(추천) 토지 추천

- 1) 서구 송촌동 (3층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 2) 남구 진월동 (5층 상가빌딩) 토 128평 건 406평 ▶ 감정가 18억 → 최저가 15억9천
- 3) 화순 도곡동 (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 (월수익 5,000만 예상) ▶ 감정가 37억 → 최저가13억4천
- 4) 서구 금호동 (7층중 7층상가) 토 54평 건 89평 대단지아파트 위치 ▶ 감정가 6억 → 최저가 3억3천
- 5) 광산구 지산동 320평 신안파크뷰 (2차선 도로접) ▶ 감정가 2억2천 → 최저가2억2천
- 6) 장성군 유양리 90,910평 ▶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3억
- 7) 남구 월산동 100평 ▶ 감정가 1억1천 → 최저가 7천9백
- 8) 북구 문흥동 378평 ▶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 9) 동구 학동 102평 ▶ 감정가 1억5천 → 최저가 8천5백
- 10) 동구 지산동 (임야) 176평 ▶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 11) 서구 화정동 105평 ▶ 감정가 8천 → 최저가 5천6백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주택 공장/기타

- ① 상무지구 세정마을(9층)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6,800만
- ② 남구 백운동 (빌라)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 ③ 북구 신안동 (6층 숙박시설)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4억9천
- ④ 북구 용동동 (2층중 7층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2억9,999만
- ⑤ 남구 주월동 (미토) 토 108평 건 83평 감정가 14억6천 → 최저가 10억
- ① 서구 문흥동 우미공영아파트 (9평) 감정가 1억6,800만 → 최저가 1억1천
- ② 광산구 신장동 신장동(아파트)22평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9천
- ③ 남구 주월동 (주택) 토 40평 건물 40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7천
- ④ 광산구 세동동 (주택) 토 52평 건물 22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 ⑤ 광산구 도산동 (주택) 토 60평 건물 22평 감정가 7천3백 → 최저가 7천
- ① 광산구 월정동 (공장) 토 2,220평 건물 1,200평 감정가 6억 → 최저가 38억
- ② 전남 보성읍 폐상리 (공장)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2억7천7백
- ③ 광산구 월정동 (공장) 토 265평 건물 80평 감정가 34억 → 최저가 34억
- ④ 전남 고흥군 동강면 (공장) 감정가 14억 → 최저가 6억
- ⑤ 전남 화순군 향남리 (병동청고) 감정가 7억6천 → 최저가 4억3천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 교육 (5월초 개강)

① 기초실전반 (경매기초 + 기본실전)

② 실전투자반 (기초 + 실전 - 매매까지)

③ 무료반운영 → (오전.오후)

기초이론부터~실전투자 리모델링.매매까지 (원스톱강의)

직원구함

-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십시오
-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십시오

평생회원 → 책상, 컴퓨터, 교육(무료제공)

010-6670-9800